



‘30년 숙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첫 단추 꿰다

한 총리, 담화문 “의대 없는 전남 신속 검토 추진” 공식화
 김지사 환영문 “의견 수렴 의대 신설안 마련 정부와 조율”
 전남대 75명·조선대 25명 증원 정원 200명·150명으로 확정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6면

정부가 전남권 의대 신설 문제를 언급하고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가 의료개혁 담화문에 이례적으로 전남을 특정하고 의대 신설 방침을 발표한 것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의대 신설 건의에 “(2022년) 대선 때에도 전남도에 오면 그(국립의대 신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한 총리 담화 발표 직후 김영록 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안을 조속히 마련,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가 없는 전남도의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20만 도민과 함께 뜨거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30여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의과대학 설립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의대 신설 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 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면 200만 도민도 제대로 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건강권과 생명권, 행복권을 당당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내 의과대학이 지역의료 권결체계의 사명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구상 중인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설립 방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는 최우선 방안으로 통합 의대 설립을 설정하고 정부와 조율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단일 의대 추진까지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결과, 전남대 의과대학과 조선대 의과대학의 정원은 각각 75명, 25명 증원된 200명, 150명으로 확정됐다.

전남대는 정부가 거점국립대의 경우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늘어나게 됐다.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정부의 후속 대책에 발맞춰 의료 인재 양성이란 거점국립대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당초 교육부에 45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최종 증원 폭은 25명으로 조정됐다. 최종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정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김다이어 기자



후보등록 접수 준비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20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무원들이 접수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오늘부터 후보 등록... ‘총선 레이스’ 점화

총선 D-20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2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점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21-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기사 3·4면

내일까지 이틀간 신청 접수...28일 선거운동 시작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 등 후보자 경력 공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천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 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

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제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 수를 가진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 제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line.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 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한상원 제25대 광주상의 회장 선출

상공의원 92표 중 52표 득표...임기 3년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한상원(사진) 다스(구)회장이 선출됐다.

2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시의원 총회를 열어 상공의원 92명(일반의원 80명, 특별의원 12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광주상의 회

장 선거 투표를 실시한 결과, 52표를 획득한 한상원 후보가 30표를 얻은 김보곤(디케이(구)회장)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무효는 1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남 출신인 한상원 회장은 광주상고와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광주상공회의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20년 이상 광주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봉사해 왔다.

또한 흥인학원 영산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광주지검 범죄예방협의회장, 전남레슬링협회장, 민주평통 전남도부외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상원 회장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밝혔던 양대노동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한 산업평화 선연을 이끌어내겠다”며 “광주시·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군공항 부지에 미래산업을 유치해 지역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광주로 모여 역동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재만 기자

Today
 국립 내부 커지는 ‘이중섭 사티론’ 4면
 성공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9면
 이강인진심사과·다시원팀으로 16면

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2024. 3. 30(토) 오전 8시 30분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봄 기운을 느끼면서 올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과 단체·동호회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2024년 3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40분

집결장소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접수 또는 모바일 접수

참가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참가비 무료

다양한 경품!

TV//공기청정기
 자전거//선풍기
 다양한 경품과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주최 광주광역시육상연맹

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협찬 조순대학교병원 해양에너지 광주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롯데백화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